잡학서고 지식의 기록

시선만 옮겨 가는 초점의 기술, 랙 포커스(Rack Focus)

원문 주소

https://www.gklibrarykor.com/11618/

PDF 미리보기 ·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화면 속 인물은 또렷한데 뒤편은 뿌옇게 흐려 있다가, 어느 순간 초점이 뒤쪽으로 스르르 옮겨 가며 다른 인물의 얼굴이 선명해지는 장면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는 그대로인데 시선만 옮겨 간 듯한 이 순간에, 관객은 대사 한 줄 없이도 이야기가 방향을 틀었음을 눈치챕니다. 이 기법이 바로 랙 포커스(Rack Focus)입니다. 하나의 연속된 촬영 안에서 렌즈의 초점을 바꾸어 선명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컷을 나누지 않고도 관객의 눈길을 정확히 원하는 곳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초점을 당긴다는 뜻에서 포커스 풀(Focus Pull)이라고도 부릅니다. 본 자료에서는 랙 포커스가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데 쓰이는지,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활용되었고 현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해내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초점을 옮겨 시선을 이끄는 기술 초점이 옮겨 가는 원리 랙 포커스는 렌즈에서 초점이 맞는 거리를 촬영 도중에 바꾸는 일입니다. 다만 효과가 눈에 보이려면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흐려져야 하므로, 화면의 선명한 범위가 좁은 환경이 어울립니다. (1) 얕은 피사계 심도(Shallow Dept